

왜 교회는 시편으로  
찬송해야 하나요?

## **일러두기**

성경 인용은 기본적으로 개역개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인용하는 문헌에서 다른 번역본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개역개정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들어가는 글

시편찬송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약백성이 부르는 찬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약백성들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보화와 같은 시편찬송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통틀어서, 시편찬송이 이토록 천대받는 상황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개혁신앙을 전하고 개혁교회의 여러 전통들을 소개할 때 큰 벽으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편찬송입니다. 시편찬송을 부른다는 교회에 의문을 표하는 것을 넘어 반감을 표출하는 경우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개혁신앙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서도 교회 찬양의 중심적 역할을 시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찬송을 사용하는 교회에서도 그저 시편찬송을 부르는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을 봅니다.

이 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충분치 못한 분량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시편찬송에 대한 어색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시편찬송을 사랑하는 일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 차례

들어가는 글 · 3

### 1. 시편은 정말 노래인가요? · 6

1. 시편이 노래임을 암시하는 표현들 · 6

2. 시편은 시입니다 · 7

3. 실제로 노래되었습니다. · 9

‘노래 부른다’는 의미 · 9

실제로 시편이 노래되어진 성경 속 사례들 · 11

### 2. 유독 시편찬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3

1.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13

2.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의 노래입니다. · 14

3. 신학적으로 풍성합니다. · 15

4. 교회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 17

5. 고백적이면서 객관적입니다. · 20

### 3. 오늘날 시편찬송을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나요? · 22

1. 시편의 가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22

2. 시편의 내용이 오늘날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23

3. 반드시 시편찬송만 불러야 하나요? · 25

오직 시편찬송만 불러야 한다는 입장 · 28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을 함께 부르는 입장 · 29

시편찬송과 성경 밖 찬송을 함께 인정하는 입장 · 32

기본은 지키되, 서로 화목하게 · 35

4. 시편찬송은 음악적으로 너무 구식입니다. · 36

음악의 영향력 · 37

예배에서 찬송의 위치와 목적 · 37

모든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찬송 · 39

예배 시에 사용되는 악기에 관하여 · 40

우리에게 맞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 41

마치는 글 · 43

부록 1. 국내에 출판된 시편찬송가 · 44

부록 2. 예배 악기에 대한 칼빈의 견해 · 46

부록 3. 교회에 시편찬송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안 · 48

참고문헌 · 55

## 1. 시편은 정말 노래인가요?

우리는 시편찬송의 전통이 너무나 약화된 나머지, 시편이 노래라는 사실 자체가 낯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sup>1</sup>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편을 접하는 것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개인경건을 위해 시편을 살피거나, 예배시간에 시편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었을 때, 또는 잘해봐야 교독문<sup>2</sup>을 통해서 시편을 읽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성도들에게 시편은 ‘부르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편찬송의 정당성은 ‘시편이란 애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어진 노래’라는 점에 상당부분 기인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왜 시편으로 찬양해야하는지를 다루기에 앞서, 시편은 원래부터 노래라는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 1. 시편이 노래임을 암시하는 표현들

시편(Psalms)이라는 제목은 그리스어 ‘프살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sup>3</sup> 프살모스는 하프나 수금, 고대의 기타 같은 현악기류를 가리키는 단

1 이 부분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큼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최소한 성경 각권의 개괄적인 지식과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교리에 대해서 성실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2 교독문[response reading versicle, 交讀文], 기독교 예배에서 사회자와 회중이 성구를 교독하는 예식문을 의미합니다. 원래 시편은 교독이 아니라 교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회당예배 때도 그랬으며, 신약 교회에서도 한동안 시편을 교창하는 전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시편을 찬송하는 전통이 점점 흐려지고, 교독하는 전통만 남은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독문마저도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편으로 찬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과정까지 교독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성희찬 역, (서울: 성약, 2016), 14; 존 콜린스, “시편 서론”, 신지철 역, 크로스웨이 ESV 스터디 바이블 편찬팀, 『ESV 스터디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1070.

어였는데, 이후에는 그런 악기들의 반주로 불리던 노래들을 가리켰습니다.<sup>4</sup>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테힐림’입니다. 테힐림은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시편의 주된 용도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sup>5</sup>

시편에는 ‘셀라’, ‘스미닛’, ‘식가욘’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 말들은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음역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용도에 있어서는 음악적인 기호 또는 예배 의식을 위한 용어일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시편이 노래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각 성경에 제목이 붙여진 것은 후대의 일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셀라’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가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이 과연 노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의 내용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시편은 시입니다.<sup>7</sup>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성경을 통해서도 시편이 시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어 성경에서는 시편이 시의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덕분에 시편이 시라는 사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원문 역시 뚜렷한 시의 형태로

---

4 존 스톡, “시편 서론”, 김대웅 역, 존더반 NIV 스터디 바이블 편찬팀, 『NIV 스터디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903.

5 존 콜린스, “시편 서론”, 『ESV 스터디 바이블』, 1070.

6 존 콜린스, “시편 서론”, 『ESV 스터디 바이블』, 1075; 존 스톡, “시편 서론”, 『NIV 스터디 바이블』, 905.

7 이 장은 전체적으로 다음을 참고하였습니다.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5-17.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살리는 것 또한 좋은 번역의 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sup>8</sup>

시편을 포함한 히브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은 ‘평행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평행법은 하나의 행이 비슷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개의 행이나 두 개의 구절 사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행법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 시편 42:1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위 구절처럼 직유나 은유가 사용된 형태를 ‘상징적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 시편 1: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구절에서는 전반부와 반대되는 내용이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앞과 뒤를 대비시킴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를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sup>9</sup>

이 외에도 시편은 다양한 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

8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역시 시편이 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신학이나 저작이 비록 개혁파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시도는 모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의 시편처럼 단순히 시의 형태로 배열하는 것을 넘어서, 시편의 히브리 원문의 시적 특징을 모두 살려서 번역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히브리 시의 특징이 현대의 시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성경 번역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9 존 스탕크, “시편 주석”, 『NIV 스터디 바이블』, 921.



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한 인용을 통해 정리하고 이 주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후렴’은 시편 42편과 43편, 46편, 67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시편’이란 시편의 첫째 행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둘째 행은 알파벳의 둘째 글자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5편과 34편, 37편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첫 여덟 행이 모두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그다음 9-16절은 모두 둘째 글자로 시작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적시하지 않는 한 당연히 번역 성경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알 길이 없습니다.<sup>10</sup>

### **3. 실제로 노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시편의 특징을 보았을 때, 시편이 시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시편이 시라는 점이(비록 시와 노래가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시편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성경들처럼 그저 읽어나가거나, 교독문을 읽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과연 시편이 성경 속에서 ‘실제로 노래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래 부른다’는 의미**

먼저 ‘노래 부른다’라는 개념에 대한 구약시대와 오늘날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인쇄술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시

---

10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6-17.

집이나 악보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노래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노래 부른다는 의미는, 오늘날처럼 정해진 멜로디에 맞추어 부르기보다는, 매우 단조로운 운율로 시편을 ‘낭송’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를 낭독하는 일과 노래 부르는 일의 차이가 모호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시대 찬양의 특징은, 시편은 물론이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의 개념이 나란히 짝을 지어서 사용되거나 혼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sup>11</sup>

###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노래하는 것이 혼용되는 예<sup>12</sup>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삼상 2:1)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삼하 22:1)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들리니라”(신 31:30)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사 12:1, 4)

하박국의 기도(합 3장)는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마리아가 가로되……”(눅 1:46)

“사가랴가…… 예언하여 가로되”(눅 1:67)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눅 2:13)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계 5:9, 12-13)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계 15:3)

11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33-136.

12 존 칼빈은 시편찬송을 공적인 기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R. Faber, “공예배 시에 시편 찬송(Psalms)과 찬양(Hymns)에 대한 칼빈의 입장”, 유충현 역, 『시편찬송에 대하여』, 손정원 편역, 43.

### 시편에서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혼용되는 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시 27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시 28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시 116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시 12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시 1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시 141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시 142편)<sup>13</sup>

위 구절들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같은 의미일 수 있으며, 시와 노래 역시 마찬가지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에게 시편이 시라는 사실이, 시편이 노래라는 의미와 동일함을 뜻합니다. 그들이 만약 시편을 시로 낭독하였다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 실제로 시편이 노래되어진 성경 속 사례들

성경 속에서 시편이 노래되어진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세의 시편인 90편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즈음인 신명기 시대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노래입니다.<sup>14</sup> 역대기 상권의 16장, 25장에서는 성전예배의 찬양으로 시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sup>15</sup>

13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33-134. 이 성경 구절들은 여기서 인용된 것을 그대로 재인용하였습니다.

14 존 콜린스, “시편 주석”, 『ESV 스터디 바이블』, 1159.

15 브라이언 캘리, “역대기 상 주석”, 신지철 역, 『ESV 스터디 바이블』, 852, 864.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지며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유월절에 불리던 할렐<sup>16</sup>인, 시편 113-118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가 기도에 앞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교회는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6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 때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 2. 유독 시편찬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노래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부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지만, 노래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고, 실제로 노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는 무수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노래의 대다수는 시편찬송에 비해 우리들에게 쉽고 친근하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교회<sup>17</sup>에서는 왜 그렇게 시편찬송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 1.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찬송 중에서도 시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시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시편이 노래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의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

17 일반적으로 개혁신교회라는 범주에는,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전통에서 있는 교회가 포함됩니다.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시 교회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뿌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장로교회의 교단 대부분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로 분류되고,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라고 인정받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신앙고백서·대요리문답·소요리문답·예배모범·정치모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와 예배모범에서는 시편찬송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로교인들의 대다수는 시편찬송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 2.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편은 다양한 시 모음집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시편이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을 역사적으로는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제 2성전 기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고, 그러한 필요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전의 시들 중에서 선택하고 편집한 것이 시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시편을 편집할 때, 모세오경(토라)를 따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였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토라를 따라 구성된 시편 역시 단순한 찬양집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시편은 믿음과 경건을 가르치는 신앙의 안내서의 역할을 한, 유대 신앙공동체의 공적인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찬양이자, 기도인 것입니다.<sup>18</sup>

그렇다면 시편은 과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가르치셨던 그 언약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동일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주어진 노래입니다.<sup>19</sup>

---

18 류호준,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노래가 되어』, (고양: 이레서원, 2006), 32-35; 헤르트 크 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21; 존 스태크, “시편 서론”, 김대웅 역, 『NIV 스터디 바이블』, 903.

19 “칼빈은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과 이후의 약속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전제로 두는 것은 언약의 통일성이다. ……새 언약에는 새로운 언약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더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분열이 지나간 지금 이방인들도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도…….”,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장호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03.

### 3. 신학적으로 풍성합니다.

시편은 신앙교육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언약백성을 가르치기에 충분할 만큼의 풍성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중에서 시편만큼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 언약공동체인 교회<sup>20</sup>

다윗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로 보는 칼빈으로서는 시편에서 교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읽을 수 있다.<sup>21</sup> 다윗과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의 통치를 그는 그리스도 지배의 담보라고 부른다.<sup>22</sup> 그는 로마서 3:13에서 시편 5:10으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교회가 인간 다윗 안에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찬성한다고 말한다.<sup>23</sup> 다윗으로 말하자면, “그는 인간 다윗 안에 그리스도도 그렇지만 교회의 몸 전체까지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다윗에 관해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20 ‘언약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의 해당 글은, 헤르만 셸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316-319에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셸더르하위스는 이 책의 대부분을 칼빈의 시편주석을 바탕으로 하여 썼습니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 시편이 차지하는 분량과, 시편의 신학적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 역시 라틴어 칼빈시편주석이 각주로 달려있는데, 이글을 인용하는 목적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셸더르하위스의 각주 역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임의로 라틴어 각주를 한국어로 번역된 칼빈주석으로 고쳐서 다시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경우에 셸더르하위스가 사용한 라틴어 원문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주 22, 23, 24, 27,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거기에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2001), 176. “caeterum hic typus vaticinium continet de futuro christi regno…”

22 “다윗의 일시적인 왕국이 하나님의 옛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세워질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일종의 담보와 같았으므로…”,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178. “... velut arrha quaedam veteri populo fuit aeterni regni…”

23 “그는 다윗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머리되는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 속에 있는 교회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여기고 있다.”,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227. “... sub davids persona nobis describi ecclesiam tam in christo capite quam in membris.”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된다.<sup>25</sup>

……(중략)…….

하나님은 교회와 성스러운 결합 관계를 맺었다.<sup>26</sup> 이 결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교회를 선택하신다는 영적인 언약”이다.<sup>27</sup> 교회의 근원은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sup>28</sup> 하나님은 지상에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sup>29</sup>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온 인류의 소임이었지만, 이 임무는 이제 교회에 의해 수행된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당신의 영예를 위한 하나님의 식민지”로 불린다.<sup>30</sup> 칼빈은 신자 개개인의 선택보다는 교회의 선택에 관해 더 많은 말을 한다. 그가 개별 선택에 관해 말하는 경우에는 항상 교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교회는 두 가지 점에서 언약공동체이다. 즉 교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구체화되는 장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언약에서 생기는 다른 신자들과의 결속이 구체화되는 장소인 것이다. 교회의 광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생의 언약을 믿고 맡겼기에 하늘의 영광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빛난다는 데 있다.<sup>31</sup>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24 시 109:1(CO 32, 147). CO=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Wilhelm Baum, Edward Cunitz et Edward Reuss, Brunsvigae-Berolini 1863-1900, 59 Bde. (Bd. 29-87) in: *Corpus Reformatorum*(CR), ed. Bretschneider, 1834ff.

25 시 120:2(CO 32, 296).

26 “…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과 그들 조상 사이에 있는 거룩한 결연의 띠로 제시하고 있는데, …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언제나 … 어떻게든 자신들과 관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323. “… vinculum sanctae coniunctionis…”

27 시 105:1(CO 32, 98).

28 “분명히 교회의 원천과 근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325. “Ét certe hic fons et origo est ecclesiae, nempe gratuitus Dei amor.”

29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그의 이름이 그 사역에 적합한 증인들에 의하여 정당하게 찬양을 받으시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교회를 창조하신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112. “… Deum sibi consulto in hunc finem gratuita adoptione creare ecclesiam in mundo, ut nomen suum rite a legitimis testibus laudeter.”

30 시 95:7(CO 32, 31).

31 “… quod foedus aeternae vitae in ecclesia sua deposuent…”, 시 93:5(CO 32, 18).



영광을 볼 수 있는 극장이다.<sup>32</sup> ……(후략)…….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신론은 물론이고, 기독론, 창조, 섭리, 타락, 성화 등 교리 전반에 대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으며, 구속사의 맥락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신학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시편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4. 교회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교회의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주요한 구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시편을 유대인 특유의 낭송 형태로, 제사장과 회중이 돌림 노래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sup>33</sup>

초대교회의 찬양에 시편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담하였고,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래들을 ‘찬송가’(hymn)라고 부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때의 찬송들은 이른바 ‘칸티클’이라 칭하는 시편 이외의 신구약 성경구절로 만든 매우 건전한 노래였습니다.<sup>34</sup>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도 시편은 한동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주후 60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교회 찬송의 다양한 형식을

32 “... ecclesia insigne sit gloriae Dei theatrum...”, 시 76:2(CO 31, 706).

33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44; 문진호, “기독교역사속의시편찬송연구와적용”, (목회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5), 5-6.

34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44-145; 문진호, “기독교역사속의시편찬송연구와적용”, 7-9.

성문화하였고 특정한 예배 순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때의 교회 음악을 그레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부릅니다. 시편은 그레고리안 찬트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독창자와 회중이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방식이나, 단선율로 이루어진 곡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오래된 시편의 전통을 떠올리게 합니다.<sup>35</sup>

두 세기 이후 카를 대제 때에는 예술과 학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찬송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에 많은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들은 수도원에 기반을 둔 신비적인 색채를 띤 노래였습니다.<sup>36</sup> 중세시대가 깊어갈수록 교회는 점점 화려한 예배를 추구하였고, 찬송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회중들이 당시 ‘교회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아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예배 찬송과 회중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sup>37</sup>

예배 속에서 시편찬송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긴 세월이 지나 종교개혁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예배의 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요한 과제였고,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시편찬송을 회중에 돌려주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1538년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목회하면서 19곡의 시편과 십계명, 사도신경, 시므온의 찬송 등을 수록하여 「찬송시의 몇몇 시편과 성가」라는 제목의 시편집을 출판했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음악에 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율 작업은 프랑스의 궁중 시인 출신인 클레랑 마로에 부탁하였습니다. 칼빈과 마로는 이후 몇

35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48; 강미경, “예배음악으로서의 시편찬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교회음악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일반대학원, 2013), 14.

36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48.

37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48-149.

차례 더 증보된 시편찬송을 출판하였으나, 1544년 마로가 사망한 이후 시편찬송 작업은 몇 년 간 멈추게 됩니다.<sup>38</sup>

1548년 칼빈은 데오도르 베자가 시편 16편에 운율 작업을 한 악보를 보게 되고, 이를 계기로 베자에게 시편찬송 사역을 맡겼습니다. 1551년에 「데오도르 베자의 34편의 시편곡」을 출판하였고, 이듬해에는 이전에 마로가 작업하였던 49곡을 합해 총 83곡의 시편찬송집을, 칼빈이 죽기 2년 전인 1562년에는 나머지 시편을 모두 운율에 맞추어 「제네바 시편집」이 출판됩니다. 이 시편은 3년 동안 63판 이상 출판되었고, 20여개국에 번역 보급되었습니다.<sup>39</sup>

시편찬송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종교개혁자 몇몇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교회들이 시편찬송을 사랑했습니다. 1564-5년에 걸쳐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1공동의식서에는 시편찬송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편찬송 외에 다른 찬송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sup>40</sup> 도르트 총회 헌법 69조에도 ‘교회에는 오직 150편의 시편과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12신조와 마리아의 찬가와 스가라의 찬가와 시므온의 찬송만을 노래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회의인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에 서는, 예배 모범을 작성하면서 시편찬송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란시스 라우스가 출간한 시편찬송을 총회의 공식 찬송가로 결정하였으며,<sup>41</sup> 신앙고백에도 시편을 찬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게 됩니다.<sup>42</sup>

38 김준범·서창원 편역,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2016), 10-11; 장수민, 『존 칼빈』, (서울: 칼빈아카데미, 2010), 387.

39 김준범·서창원 편역, 『시편찬송』, 11.

40 김준범·서창원 편역, 『시편찬송』, 11.

41 황희상, 『특강 종교개혁사』, (안산: 흑곰박스, 2016), 302-303.

42 “...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시편을 노래해야 하며...”, 손재익 역, 「웨스트민스터 신

시편찬송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약백성이 부르는 찬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시편찬송은 일종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시편찬송을 부른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를 위해, 회중들에게 시편찬송을 돌려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이 귀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교회사 속에서 가장 깊은 전통을 가진 찬송이며, 소중히 여겨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 5. 고백적이면서 객관적입니다.

시편 속에서는 시편 기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한 신자의 마음과, 죄악에 몸서리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게 서고자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종을 울리는 노랫말이 시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현대의 찬송들 또한 세련된 표현으로 무장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송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편만의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시편이 가지는 최고의 매력이라고까지 표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시편은 ‘신자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가득함과 동시에, 그 내용이 지극히 객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관적 찬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찬양들의 가사가 애매모호함을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해치는 수준에 와있습니

---

양고백서」, 21-5, <http://cafe.daum.net/hgpch/L8PY/38>.

다. 이러한 찬양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에 개인적인 요소가 있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르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방편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을 선택하시되 교회의 지체로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시고<sup>43</sup>, 신앙을 보존하시는 것 역시 말씀과 성령이라는 공적인 방편을 통해 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이자,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갑니다.<sup>44</sup>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찬양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나머지,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중 누군가가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노래이자, 신학적으로 풍성하며, 교회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객관적이며 건조하지 않다’, 더 이상 적절한 교회의 찬양의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

4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손재익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 <http://cafe.daum.net/hgpch/L8PY/7> ; 이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67문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해당 문단 전체와 관련해서는 앞서 인용한 “언약공동체인 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14;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318-319.

### 3. 오늘날 시편찬송을 부르기에는

####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나요?

시편찬송이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좋은 줄도 알겠고 불러야하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예배에 도입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실적인 장애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어볼까 합니다.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찬송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걸까요?

#### 1. 시편의 가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1차적 수신자는 당시의 언약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을 수월하게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성경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같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up>45</sup>

시편에는 성경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편을 부른다면 그만큼 감동이 반감될 뿐 아니라 시편이 주는 여러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sup>46</sup>

처음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시편찬송이, 오랜 세월이 지나 종교개혁시대에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점은,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시편을 부르는 일이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와, 속해 있는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실하게 해설하는 설교와 꾸준한 교리 교육은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 **2. 시편의 내용이 오늘날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저주나 보복의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시편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심판, 위협, 저주, 진노 등과 같은 살벌한 표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빈도가 확 줄어들긴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에 빠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건 뭐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살벌한 노래를 찬양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같은 식입니다. 이런 고민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나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성경 전체의 일치와 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완전히 나누어 버리거나, 선신과 악신의 대립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sup>47</sup>

---

45 2-3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6 2-3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혼란의 이유에 대해서도 교회의 교육 부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편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왜곡된 찬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더 나아가 자의적으로 상상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 찬양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시편찬송이 오늘날 정서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반드시 성경에 대한 몰이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 귀담아 들을만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한 예로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왓츠(1674-1748)를 들 수 있습니다.<sup>48</sup>

당시의 영국교회의 찬송은 시편찬송이나 칸티클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왓츠는 몇 가지 이유로 예배에서 시편만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왓츠는 시편이 원래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시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면 시편이 가졌던 고유의 음악적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노래로서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왓츠가 시편찬송에 대해 반대한 것에는 신학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왓츠는 시편 중에서 저주시와 같은 것들은 복음의 정신에 반대된다고 보았고, 시편 자체가 구약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왓츠가 작곡한 찬송 중에는 시편의 구약적 언어를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편집한 곡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적들은 분명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왓츠의 고민 자체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그의 찬송 역시 복

47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 한 예로, 현대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를 들 수 있습니다. 블로흐의 성경해석에 대해서는, 이종인, “희망의 두 지평, 에른스트 블로흐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비교”, (신학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6), 21-28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8 이 장의 아이작 왓츠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했습니다. 이성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거진 re』, 22호, 78-83.



음적이고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왓츠의 찬송을 시작으로 시편찬송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찬송에 대한 왓츠의 큰 공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손실 역시 막대했습니다.<sup>49</sup>

찬송에 대한 왓츠의 긍정적인 영향은 인정하더라도, 그의 의견 중에도 무지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편 중에 복음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주, 보복, 심판, 위협의 표현들은 시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약의 축복은 언약의 저주와 함께 제시됩니다. 구원 자체가 심판이 전제에 깔려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뒤에는,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과 17-18세기의 영국인들과 21세기의 한국인 모두의 시대적 정서가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동일한 언약에 가담한 언약백성으로서의 정서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 **3. 반드시 시편찬송만 불러야 하나요?**

이와 관련된 논의는 특히 예배찬송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시편찬송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참으로 아

를 답하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문화 근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찬송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혁신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예배의 규정적 원리' 때문입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sup>50</sup>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정신입니다. 결국 시편찬송에 대한 교회의 태도 역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개혁신교회 안에서도 시편찬송에 대한 여러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추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물론 각 입장마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정답으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시편찬송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편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교회성을 위해서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시편찬송에 대한 개혁신교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개혁신교회 교단들을 분류한 이후에, 각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sup>51</sup>

## 시편찬송에 대한 개혁신교회의 세 가지 입장

### 오직 시편찬송(Only the Psalter)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

스코틀랜드 자유 장로교회(Fre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북미 개혁신장로교회

5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1.

51 해당 분류는, 김병혁, “시편찬송에 관한 솔리데오글로리아교회의 입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장로개혁교회(Presbyterian Reformed Church)  
아메리카 장로교회(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미합중국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 **시편찬송과 성경찬송(the Psalter and Bible Songs)**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sup>52</sup>  
미국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성경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  
연합개혁장로교회(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캐나다 미국개혁교회(Canadian and American Reformed Churches)  
자유개혁교회(Free Reformed Churches of North America)  
헤리티지 개혁교회(Heritage Reformed Congregations)  
미국 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연합 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es in North America)  
자유 개혁교회(Free Reformed Churches of North America)  
개신교 개혁교회(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그 외 네덜란드 개혁교회 다수  
솔리데오글로리아교회 등<sup>53</sup>

---

52 ‘오직 시편찬송’의 입장에 있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와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의 입장에 서 있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는 같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교단 안에서 찬송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찬반으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에 있는 김병혁 목사님의 강의 녹음 파일을 참고하였습니다.

53 솔리데오글로리아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에 소속된 교회로 개혁파 장로회주의를 추구하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번 챕터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솔리데오글로리아 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 시편찬송과 성경 밖의 찬송(the Psalter and Gospel Songs)

스코틀랜드 장로교회(Church of Scotland)

그 외 미국 장로교회

북미주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한국장로교회(교단) 다수

독립개신교회(성약교회) 등

### 오직 시편찬송만 불러야 한다는 입장

앞서 이러한 차이들이 결국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중에 가장 엄밀한 입장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시에 오직 시편찬송만을 부릅니다. 이 입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시편 외에는 공식적인 예배찬송을 주신 적이 없다고 보며, 에베소서 5:19와 골로새서 3:16을 오직 시편만을 부르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시편이야말로 가장 좋은 찬송이며,<sup>54</sup>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시편찬송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떠나서 예배에 대한 이들의 태도만큼은 분명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설교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시간, 설교의 구성, 설교 속의 몇몇 표현 등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개혁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에 비하면 설교보다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찬송을 가지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

54 “성령께서 친히 시편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노래는 시편이다.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찬양하는 것을 확신한다.”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Oxford: Lion Book, 2007), p. 114, 장수민, 『존 칼빈』, (서울: 칼빈아카데미, 2010), 38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이 입장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편이 공식적인 예배찬송으로 사용되고 이를 목적으로 편집된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에 시편 외에도 다양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래들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자 노래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종교회의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칸티클 정도는 지지하였으며,<sup>55</sup> 칼빈 역시 제네바 시편찬송에 십계명과 시므온의 노래 등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도, 오직 시편만을 불러야한다는 입장은 교회사를 통틀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을 함께 부르는 입장

이러한 반론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은, 예배 시에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을 함께 사용합니다. 성경찬송이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 칸티클과 같은 찬송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도신경 찬송처럼 교회사 속에서 아주 깊은 전통을 가진 곡들이 함께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편이 찬송으로 합당하다면 성경 속 다른 노래들도 찬송으로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19와 골로새서 3:16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시편과 함께 다른 종류의 찬송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 또한 첫 번째 입장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 입장은 시편찬송만을 부르는 교회에 비해서는 온건하지만, 예배찬송의 기본적인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충실하다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 또한 보수적이라고 비판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반드시

55 “교회에는 오직 150편의 시편과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12신조와 마리아의 찬가와 스가랴의 찬가와 시므온의 찬송만이 불러져야 할 것이다.”, 「도르트 총회 교회 헌법, 제69항」, “시편 찬송에 관한 솔리데오글로리아교회의 입장”의 강의안 ppt에서 재인용함,  
[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찬송의 가사로 사용해야지만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사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가사의 의미가 성경적인 찬송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찬송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생각보다 쉽게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생각해봅시다. 설교는 성경 말씀이 본문으로 주어지지만, 본문에 대한 목사의 해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충실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해설에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비추어 건전하다면,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한계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하면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교리 설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교회의 오후예배 설교는 교리를 해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에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 교리문답이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당연하게도 교리문답 본문은 그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개혁신교회의 대부분이 교리 설교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성경 말씀만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의 기준이 된다면 이를 충실히 따르는 개혁신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의 가사가 엄밀히 말하자면 영감 받은 말씀 자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혁신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원본이 아닌 사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그 사본이 번역된 것이고, 번역된 성경을 또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번역자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직역에 가깝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의역이고, 어떤 것은 더 심한 의역이고, 이런 식입니다.<sup>56</sup> 게다가 말씀을 찬송의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율에 맞추기 위한 수정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을 하나님의 영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이야기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찬송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조차도 성경 자체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편찬송과 성경찬송도 성경에 기록된 찬송 그대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성경찬송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의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이 입장에 서 있는 교단들도 진작 이 정도 고민은 끝냈을 겁니다. 탄탄한 신학과 전통을 가진 교회들인데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이라는 일반적 원칙 위에 서 있는 이유는 허술한 논리나 고집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건전한 찬송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선한 의도 때문이라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들은 성경 그 자체만을

---

56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본과 번역본들만으로도 성경의 권위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66권의 기록 시기가 많게는 1500년씩 차이가 나는데도, 각권의 내용은 놀랍도록 조화롭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모이는 과정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사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번역본들의 몇몇 오류마저도 성경의 진리를 도무지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고집한다기보다는, 성경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교회의 전통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 찬송과 같은 곡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 **시편찬송과 성경 밖 찬송을 함께 인정하는 입장**

이제는 시편찬송과 성경 밖의 찬송을 함께 인정하는 입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경 밖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에서는 형식의 자유가 내용의 방종을 불러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 밖 찬송의 예로는,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예배 시에 사용하는 찬송가의 대부분과,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흑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복음송, 그리고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는 CCM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찬송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편찬송과 성경 밖 찬송을 함께 인정하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극단적인 예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한국 장로교회의 교단 헌법에는 시편찬송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단 헌법의 근본정신이 되는 문서들에는 엄연히 시편 찬송을 언급하고 있고, 이 교단들은 이 문서들을 공식적인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들은 신앙고백이나 예배모범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만,<sup>57</sup>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목회

---

57 한국 장로교회의 초기에는 장로교회 고유의 신학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서는 철저한 장로회주의자도 있었지만, 초교파적인 교회 연합이나 부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후자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오랜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해 아주 간략한 12신조를 고백하였고, 이러한 신학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교회론의 왜곡, 예전에 대한 몰이해 등을 낳았으며, 찬송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찬송에 대한 기준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아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성경 밖의 찬송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찬송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분명히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한국 장로교회는 시편찬송도 함께 부르는 교회라고 봐야합니다. 어쨌든 교단의 근본이 되는 문서들에 시편찬송이 분명히 권고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시편찬송은 인정조차 못 받고 성경 밖의 찬송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는 예배찬송으로 적절치 않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부르는 빈도가 줄어들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CCM들이 예배찬송의 주류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형식이 성경 밖으로 벗어나자, 내용마저 성경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역사도 짧은 한국 장로교회를 예로 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앞서 다른 이야기 왓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시다. 분명히 시편찬송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의 영국교회에서, 왓츠의 찬송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면, 교회에 성경 밖의 찬송을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왓츠의 찬송들은 건전하다고 평가받을만한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찬송의 전통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내용마저 건전하지 못한 찬송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의 찬양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목격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배찬송을 건전하게 잘 지켜가고 있는 교회들도 마음을 놓아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를 향해 참으로 신속하게 기울어집니다. ‘시편찬송과 성경 밖의 찬송 모두 다 괜찮아’라는 생각이 ‘굳이 시편찬송

이 아니라도 괜찮아. 성경에 없는 노래로 찬양하면 뭐 어때?’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다보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어느새 고루한 것으로 치부되고 결국엔 폐기처분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밖 찬송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절제하게 성경 밖 찬송을 인정하였을 때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이 잘 준비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세 번째 입장이 제 개인적 입장과 가장 가깝습니다. 시편만을 고집하면 공교회성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찬송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만족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개혁신교회의 설교 전통에 강해 설교뿐 아니라 교리 설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찬송의 전통에도 시편을 바탕으로 한 성경찬송과 함께, 교리문답처럼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충분히 성경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나름의 성경 밖 찬송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개혁신교회들이 시편찬송과 함께 성경 밖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저렇게 많은 교단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시편찬송과 함께 성경 밖 찬송을 수용하는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의 노래라는 기준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다른 기준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교회 또는 지교회에게 적절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교단 차원의 찬송가를 제작하는 일이겠지만, 교단들의 지금 상태들을 보았을 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개교회나 지교회에서 건전한 찬송을 추려서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미 성경 밖의 찬송을 수용한 입장에 서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예배찬송의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의 개혁신교회 교단들은 역사가 긴만큼 지금의 한국 장로교회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찬송의 변화를 꾀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전통에 서있는 그들이 우리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기본은 지키되, 서로 화목하게**

‘반드시 시편찬송만을 불러야 하나요?’로 시작된 이야기가 꽤 길어졌습니다. 시편찬송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고, 서로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편을 부른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서있는 교회라면, 예배찬송으로 시편‘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시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찬송만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교회성에 다소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가장 좋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찬송과 성경찬송을 함께 부르는 교회들 역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입장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지켜나가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시편찬송과 더불어 성경 밖 찬송을 인정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찬송이 허물어진 교회는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하고, 이 입장 속에서도 시편찬송을 잘 지키고, 건전한 찬송의 전통을 발전시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의 사례에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세 번째 입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좋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의 사이 어느 지점에, 예배찬송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한 교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다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이라도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교회에 유익이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 **4. 시편찬송은 음악적으로 너무 구식입니다.**

오늘날 시편찬송에 대한 수많은 반론과 불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음악적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곡조가 너무 구식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시편찬송은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므로, 지금의 음악적 정서와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찬송의 노랫말 같은 경우에는 시편 자체의 권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어떠한 곡조에다가 시편과 같은 권위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찬송의 음악적 요소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비록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떠한 음악이 찬송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고, 또 고민해야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찬송을 작곡하는 음악가들 역시 나름의 고민 속에서 작품을 탄생시켰을 것입니다(물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랐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시편찬송의 곡조가 구식이라고 무작정 지적하기 보다는, 당시에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곡조를 붙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 음악의 영향력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시편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신앙교육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언약백성들, 즉 교회는 음악을 신앙 교육의 방편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칼빈 역시 음악의 영향력에 주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 가운데서 음악은 아주 뛰어나며 적어도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주해야 한다 … 플라톤이 현명하게 생각했듯이 인간의 길을 이런 저런 방향으로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이리 저리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sup>58</sup>

칼빈의 생각처럼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되는 찬송은, 예배의 핵심인 말씀 선포에 앞서서 회중의 마음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회중들이 설교의 핵심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찬송은, 말씀 사역에게서 예배의 중심 자리를 찬탈하고, 오직 음악 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예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예배에서 찬송의 위치와 목적

어떠한 음악이 예배찬송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예배에서 찬송

---

58 장수민, 『존 칼빈』, (서울: 칼빈아카데미, 2010), 388

의 역할이 무엇이고,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이해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찬송은 말씀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을 수 없고, 말씀을 돕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에서 찬송이 가지는 직접적인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본래 시편은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sup>59</sup> 시편 속의 많은 표현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노래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꼭 시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칼빈에게서도 발견됩니다.<sup>60</sup> 칼빈은 시편찬송을 공적기도라고 정의하며, 이 외에도 찬양과 기도를 하나로 보는 관점은 칼빈의 저작에 두루 나타납니다. 이처럼 찬양은 기도의 행위이며, 예배찬송은 기도의 목적을 가집니다. 언약백성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하여 찬양, 곧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들 위에서 예배찬송의 음악적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성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시켜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찬송으로 인한 여운이 너무 깊은 나머지 설교를 듣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면 예배찬송으로 실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 표현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가사를 생각할 수 없다면 기도의 목적

59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확실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의 기도는 너무도 냉랭해서 우리를 크게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게 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도록 이끌어 갑니다.”, 존 칼빈, “교회건립서언”, 『칼뱅 소품집 1』, 박건택 편역, (용인: 크리스천르네상스, 2016), 494; “우리는 여기서 기도 중에 말로 발설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감동에서 우리나라를 경우, 그것들을 매우 강하게 장려하는 것이다. 말로 발설하고 노래함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최종판)중』,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474-475; 칼빈은 기독교강요 3, 20, 32에서도 기도예에 관한 논의 속에서 찬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R. Faber, “공예배 시에 시편찬송(Psalms)과 찬양(Hymns)에 대한 칼빈의 입장”, 『시편찬송에 대하여』, 35.

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예배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sup>61</sup>

### **모든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찬송에 관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업적은, 예배찬송을 회중들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sup>62</sup>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주일 예배가 연령별, 부서별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한 교회에 속하였고, 한 가정에 속하였는데, 각기 다른 예배에서 다른 설교를 듣고, 다른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한 몸 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모든 세대가 동참하는 것이기에, 예배찬송 역시 모든 회중이 부를 수 있는 노래여야만 합니다. 트롯이나 힙합처럼, 일부 세대에게만 선호될 수 있는 음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노래에 재능이 부족한 지체들이 부르기 어려운 곡들 역시 예배찬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을만한 찬송을 위해서는 각 지체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 다양한 장르의 유행가가 범람하고 있고, 그런 만큼 각자의 취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양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수단이 바로

---

61 이와 같은 이유로 예배 시에 방언기도는 금지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서 247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3을 참고하세요.

62 이런 이유로 성가대는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입니다. 결국 건강한 말씀이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모두 함께 찬양하는 건강한 예배찬송의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 **예배 시에 사용되는 악기에 관하여**

시편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예배 시 악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이미 자리 잡은 기타, 베이스, 드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예배당에 피아노나 오르간 중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자악기들의 음색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편입니다. 회중들이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피아노 보다는 오르간의 선호도가 좀 더 높습니다. 시편찬송과 같은 교회의 전통적인 음악을 표현하기에 오르간이 보다 적절한 악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에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래된 멜로디만을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음색이 자극적이라는 말 역시 기준이 분명치 않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마냥 소극적으로만 보이는 개혁교회의 악기 사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령 일부 교회들은 반주를 통해 찬송을 주도하는 반주자가 일종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르간을 예배당 뒤쪽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악기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의 감동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백



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오늘 선포된 말씀 때문인지, 지금 부르고 있는 시편의 가사 때문인지, 아니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의 탁월한 노래 실력이나 연주 실력 때문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결코 건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악기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혁신교회라면 모름지기 오르간을 사용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피아노가 예배 악기의 절대적인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예배의 본질을 바탕에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기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어떤 마음과 의도로,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 **우리에게 맞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개혁신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편찬송의 곡조는 정말 구식입니다. 개혁신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한 한 성도님께서 예배 중에 제네바 시편찬송을 처음 접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음악성을 말살하시면서까지 내 신앙을 시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악은 우리 삶에 큰 부분이고, 예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고루한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며 하면서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신앙으로 견뎌내라’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면, 이 또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감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적당한 선에서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역시 또 다른 극단입니다. 우

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맞는 보편적인 곡조를 시편에 입히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구식으로 느껴지는 제네바 시편찬송의 곡조도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제네바 시편찬송의 곡조에 대해서는 당시의 대중적인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고,<sup>63</sup> 반대로 고품격이고 장엄한 것을 채택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sup>64</sup> 확실한 것은 칼빈이 생각하는 찬송에 적합한 곡조의 기준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대중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반영하고<sup>65</sup> 거룩해야 한다는 점 모두가 고려되었다는 사실입니다.<sup>66</sup>

지금 시점에서 제네바 시편찬송이나, 스코틀랜드 시편찬송의 음악성만 보자면 시대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녹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음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곡조를 가진 시편찬송들이 여전히 개혁신회에서 사랑받는 것인지로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래된 곡조에 그대로 멈춰있어서는 안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시편을 불렀고, 개혁자들이 당시에 맞는 곡조로 시편찬송을 펴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곡조를 만들어서 소중한 시편찬송의 전통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

63 황희상, 『특강 종교개혁사』, 304.

64 R. Faber, “공예배 시에 시편찬송(Psalms)과 찬양(Hymns)에 대한 칼빈의 입장”, 『시편찬송에 대하여』, 47-48;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칼빈 A Pilgrim's Life』, 조송희 역, (서울: Korea.com, 2009), 193.

65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칼빈 A Pilgrim's Life』, (서울: Korea.com, 2009), 193.

66 “시편찬송의 곡조는 거룩하고 순수해야하며, 그리스도의 회중의 신앙이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CO 6, 169-170), R. Faber, “공예배 시에 시편찬송(Psalms)과 찬양(Hymns)에 대한 칼빈의 입장”, 『시편찬송에 대하여』, 4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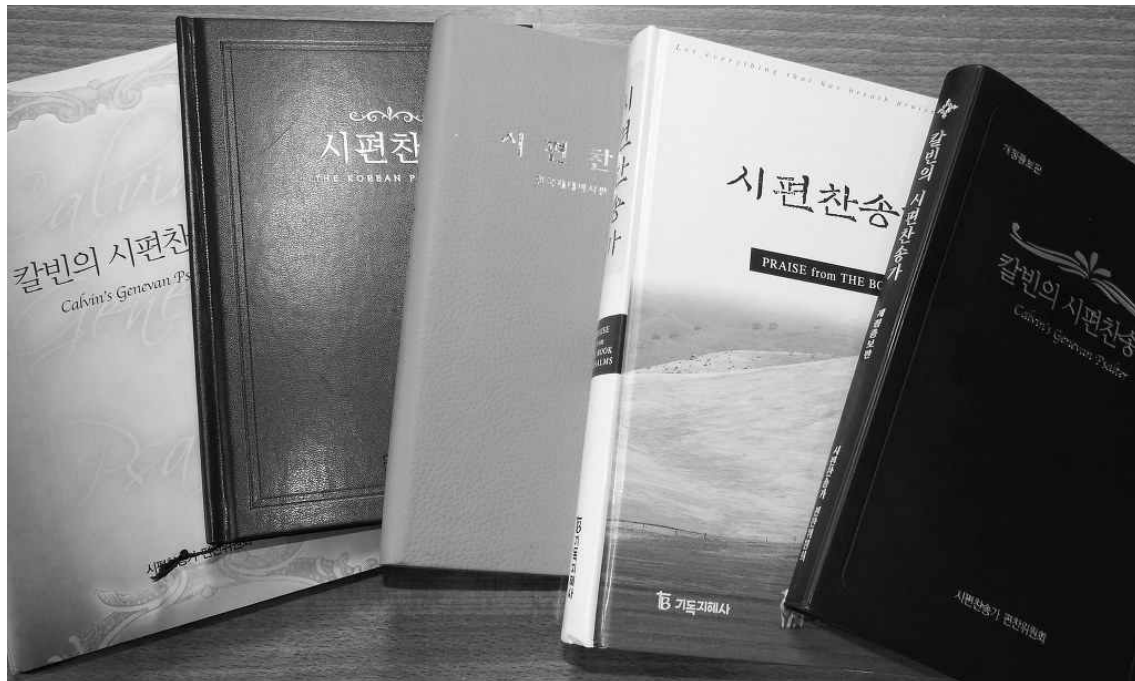
## 마치는 글

개혁교회를 출석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편찬송가를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투박하기 그지없는 멜로디였지만 참 열심히도 따라 불렀습니다. 시편을 부를 때마다 제 머리 속에 ‘구약의 언약백성들도 시편을 불렀다.’, ‘내 스승이나 다름없는 개혁자들도 시편을 불렀다.’, ‘비록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고백을 가진 지체가 시편을 부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가득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편찬송은 제가 한 언약에 가담한 보편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감케 해주는 방편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어 말하자면 시편찬송은 제게 일종의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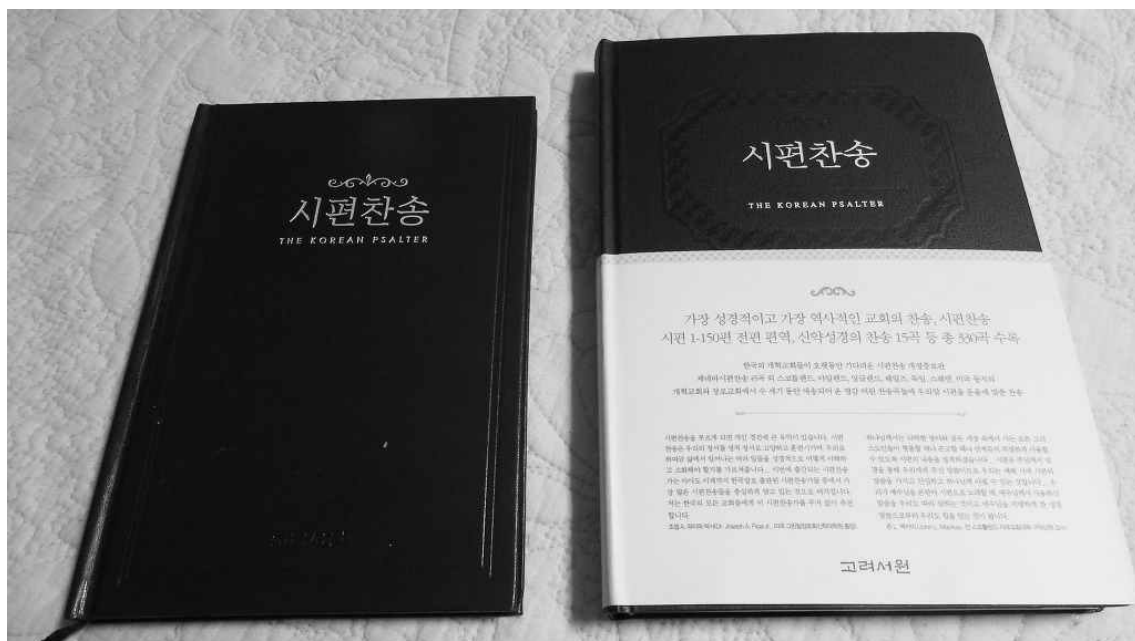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시편찬송에 대한 자료를 뒤적이고 끄적거렸습니다.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렇게 허접하기 그지없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큰 유익을 누렸노라고 고백합니다. 개혁신앙에 대한 확신과, 시편찬송에 대한 가치와, 제가 속한 교회에 대한 감사를 두루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중한 과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시편찬송을 더욱 사랑하고,  
그 전통이 보다 발전적으로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 부록 1. 국내에 출판된 시편찬송가



[그림1]



[그림2]

### **[그림1] 왼쪽부터 설명**

1. 칼빈의 시편찬송가, 진리의 깃발, 제네바 시편찬송입니다.
2. 시편찬송, 고려서원, 스코틀랜드 시편찬송입니다.
3. 시편찬송, 교회와 성경, 제네바 시편찬송입니다. 시편 가사를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이 아니라 나름의 번역으로 붙였습니다.
4. 시편찬송가, 기독교지혜사, 북미개혁교회가 사용하는 곡조에 시편을 붙인 것입니다.
5. 칼빈의 시편찬송가, 진리의 깃발, 1번 책의 개정증보판입니다.

### **[그림2]**

왼쪽의 책은 **[그림1]**의 2번 책, 고려서원에서 나온 스코틀랜드 시편찬송입니다. 오른쪽의 책은 왼쪽의 책의 개정증보판입니다. 제네바 시편찬송 중 일부 곡도 실려 있습니다.

글·그림 출처: 한길교회 카페 <http://cafe.daum.net/hgpch/MFjH/5>

## 부록 2. 예배 악기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나뭇의 신학적 근거를 들어서 예배 시 악기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근거라는 것이 나뭇 상당히 독특한 것이라서 별도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악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같이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더 단순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sup>67</sup>

칼빈은 구약 성전에서 사용된 악기가 단순히 음악을 보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나 언어처럼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sup>68</sup> 이 말인 즉, 구약의 시점으로 봤을 때 악기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 즉 의식법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러한 옛 의식들이 폐지되었듯이, 악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음악이나 악기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중에게 찬송을 돌려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악기 사용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처럼 어렸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복음의 밝은 빛이 율법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한 지금에도, 그토록 유치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

---

67 장수민, 『존 칼빈』, 386

68 장수민, 『존 칼빈』, 386

도록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선지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잘못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칼빈 시편 주석 81:1-3)<sup>69</sup>

칼빈이 어떤 근거로 악기가 의식법에 속했다고 판단했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빈이 구약의 유대공동체를 ‘어린아이처럼 어렸다’고 표현하고, 신약교회가 보다 ‘더 단순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칼빈은 신약시대의 예배 형식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지지받는 몇 가지(말씀, 성례, 기도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약의 의식에 속했던 것으로 보았을 소지가 있습니다.

짐작컨대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가리키는 바를 성취하셨고, 이제는 완성된 정경과 그 말씀에서 명백하게 제시되는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 구약의 의식들이 알려주던 바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에는 악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sup>70</sup> 실제로 칼빈은 “인간의 음성이 ... 생명이 없는 모든 악기를 능가한다”<sup>71</sup>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찬송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소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악기에 대한 칼빈의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배에 해당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지지하지 않는 요소들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보는 듯한 칼빈의 입장이, 어쩌면 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충실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sup>72</sup>

69 장수민, 『존 칼빈』, 390에서 재인용.

70 “오늘날 우리가 필요 없이 그것들을 재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옛적의 그림자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하신 빛을 덮어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다.”(CO 30, 259). R. Faber, “공예배 시에 시편찬송(Psalms)과 찬양(Hymns)에 대한 칼빈의 입장”, 『시편찬송에 대하여』, 49에서 재인용

71 장수민, 『존 칼빈』, 390

72 사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칼빈이 살았던 시대보다 한참 후에 자리 잡은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더 이 원칙에 충실한 듯 보이는 모습이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 부록 3. 교회에 시편찬송이

####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안

시편은 언약백성의 공적인 찬양이자 기도이며, 신앙교육서입니다. 또한 시편은 기독교 신학의 보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시편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시편의 가치를 모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예배 때 부르는 시편찬송의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될 것이며, 예배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한권의 책에 시편찬송과 성경 본문, 간략한 본문 해설을 함께 담는 일입니다. 간단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중들이 마음으로 시편을 부를 수 있는 날을 위해 많은 고민과 시도를 부탁드립니다.



# 스코틀랜드 시편찬송 1편<sup>73</sup>

## 시편 1편

BLOXHAM • 8 6 8 6

1

arranged by 김준범, 2001

Adapted from a melody in Williams' Psalmody, 1770

1. 복 있 - 는 사 람 누 구 노  
2. 복 있 - 는 사 람 누 구 노  
3. 복 있 - 는 사 람 누 구 노  
4. 복 있 - 는 사 람 누 구 노  
5. 복 있 - 는 사 람 누 구 노

악 여 한 길 버 리 고  
나 나 호 와 의 율 밭 서  
감 찰 하 에 시 나 고  
니

오 만 한 자 의 자 목 리 에  
즐 거 절 위 하 다 파 실 상 헤  
삼의 판 전의 다향 못 뻗 하 는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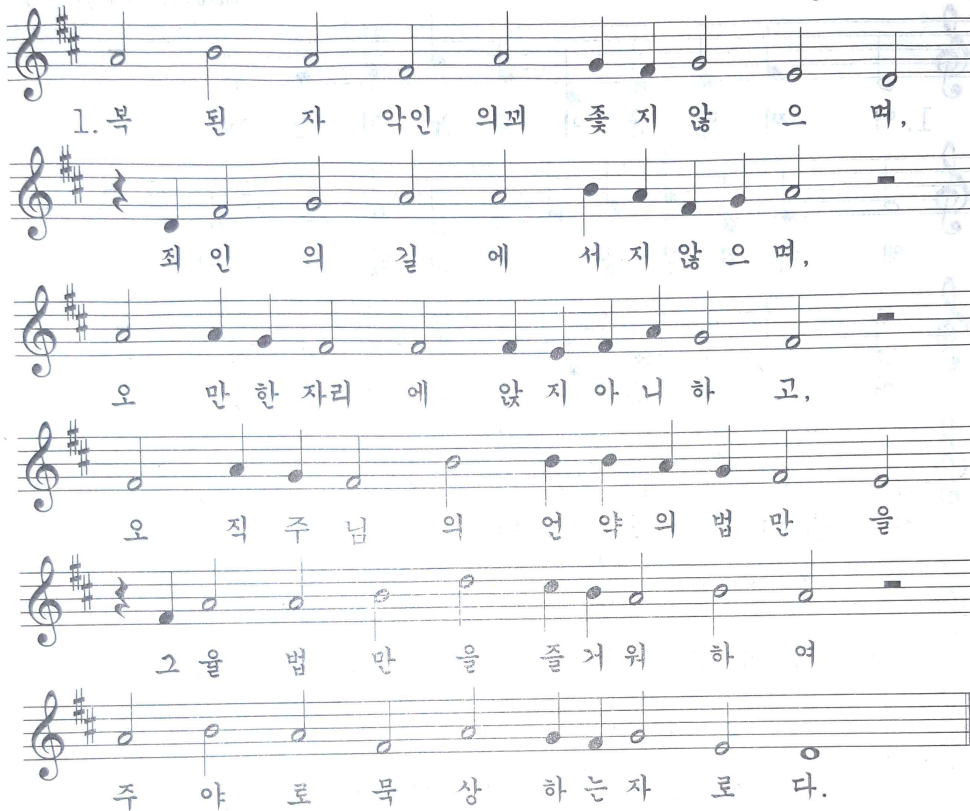
앞 지 앞 는 사 람  
따 르 는 자 으 니  
마 르 와 같 망 하  
와 한 자 하

73 김준범·서창원 편역,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2012), 21의 악보를 담았습니다.

## 제네바 시편찬송 1편<sup>74</sup>

### 시편 1편

Strasbourg, 1539/Genva, 1551



1. 복 된 자 악인 의 꾀 좇 지 않 으 며,  
 죄 인 의 길 에 서 지 않 으 며,  
 오 만 한 자 리 에 앞 지 아 니 하 고,  
 오 직 주 님 의 언 약 의 법 만 을  
 그 을 법 만 을 즐 거 워 하 여  
 주 야 로 목 상 하 는 자 로 다.

2.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때를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3. 의인과 악인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 가까웠으니,  
 악인이 심판 견디지 못하며,  
 의인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74 배진원, 『시편찬송』, (부산: 사랑과 언약, 2009), 11의 악보를 담아왔습니다.

## 개관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 4 악인은 그렇지 앎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 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sup>75</sup>

이 시편은 두 가지 길, 곧 ‘죄인의 길’<sup>1</sup>과 ‘의인의 길’<sup>2</sup>의 최종 결과를 선언합니다.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대조점을 세 가지 기준(삶의 길<sup>1-2</sup>,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환경<sup>나무, 겨</sup>, <sup>3-4</sup>, 그들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sup>5-6</sup>)으로 설명합니다.

이 시편은 독자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므로, 죄인들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의인들 중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sup>76</sup>

---

75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30. 이 성경구절들은 여기서 인용된 것을 그대로 재인용하였습니다.

76 존 스탕, “시편 주석”, 『NIV 스터디 바이블』, 919.

## 본문 주해<sup>77</sup>

###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어지는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확인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들의…** 그(1절이 말하는 사람)는 이들을 따르지 않고 이들의 인생관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가 이들과 전혀 교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과 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 2절

**율법**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을 포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뿐 아니라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시므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즉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 3절

**시냇가** 이 단어는 사람이 판 수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로 옆에 심

---

<sup>77</sup> 해당 본문 주해는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존 콜린스, “시편 주석”, 『ESV 스테디 바이블』, 1081;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31-35

긴 나무는 항상 물이 충분하여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1-2절이 묘사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에게는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수고하는 일은 때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가져가십니다.

#### 4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키질을 할 때 알곡에서 분리되어 바람에 날려갑니다. 악인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겨에 비유됩니다.

####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치 겨가 바람에 날려가듯,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 6절

**의인의 길은** 여기서 ‘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삶을 모두 아시며 사랑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 보충 설명<sup>78</sup>

시편 1편의 의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오히려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만 두는 모습을 정당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2절의 ‘율법’을 ‘복음’이라는 말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그 모든 차이

---

78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144에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분의 약속과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그 한가지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속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규칙입니다. 두 경륜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 참고 문헌

### 출판된 도서

- 헤르트 크바컬·밥 파워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찬송 시편』, 성희찬 역, (서울: 성약, 2016)
- 크로스웨이 ESV 스터디 바이블 편찬팀, 『ESV 스터디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 존 콜린스, “시편 주석”, 신지철 역
  - ♦ 브라이언 켈리, “역대기 상 주석”, 신지철 역
- 존더반 NIV 스터디 바이블 편찬팀, 『NIV 스터디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 존 스텍, “시편 주석”, 김대웅 역
- 류호준,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노래가 되어』, (고양: 이레서원, 2006)
-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장호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존 칼빈,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4, 여호수아 I, 시편 I·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2001)
- 황희상, 『특강 종교개혁사』, (안산: 흑곰북스, 2016)
- 박건택 편역, 『칼뱅 소품집 1』, (용인: 크리스천르네상스, 2016),
  - ♦ 존 칼빈, “교회건립시안”
  - ♦ 존 칼빈, “제네바 교리문답서”
- 존 칼빈, 『기독교 강요(최종판)중』,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칼빈 A Pilgrim's Life』, (서울: Korea.com,

2009)

-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 김준범·서창원 편역,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2012)
- 김준범·서창원 편역,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2016), 개정증보판
- 배진원, 『시편찬송』, (부산: 사랑과 언약, 2009)

## 정기 간행물

- 이성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거진 re』, (그라티아), 22호

## 출판되지 않은 문서

- 손정원 편역, 『시편찬송에 대하여』
  - ♦ J. Kortering, “개혁주의 유산 시편 찬송” 손정원 역, 원제 “Psalm Singing: A Reformed Heritage”
  - ♦ R. Faber, “공예배 시에 시편찬송(Psalms)과 찬양(Hymns)에 대한 칼빈의 입장”, 유충현 역,
  - ♦ K. Deddens, “우리의 시편 멜로디의 기원”, 김영환 역
  - ♦ R. Faber, “공적 예배 시에 시편과 찬송에 관한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 박상현 역

## 학위 논문

- 이종인, “희망의 두 지평 ,에른스트 블로흐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비교”, (신학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6)
- 문진호, “기독교역사속의시편찬송연구와적용”, (목회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5)

- 강미경, “예배음악으로서의 시편찬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교회음악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일반대학원, 2013)

## 웹 자료

- 손재익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 <http://cafe.daum.net/hgpch/L8PY/38>.
- 손재익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 <http://cafe.daum.net/hgpch/L8PY/7>
- 한길교회 카페, <http://cafe.daum.net/hgpch/MFjH/5>
- 김병혁, “시편찬송에 관한 솔리데오글로리아교회의 입장”, 강의 음성 파일과 강의 PPT에서 참고 및 인용
  - ♦ [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http://www.sdgfaith.com/index.php?mid=wmc&document_srl=219779).

